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나주 빛가람동에 양배추 기부

취약계층에 양배추 600포기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나주시협의회 빛가람동봉사회 사진 /나주시 제공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동장 김귀남)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회장 손현화)가 지난 2일 빛가람동의 우리동네 공유냉장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양배추 600포기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농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배추 농가를 돕고 관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현화 대한적십자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귀남 빛가람동장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나주지구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동네 공유냉장고'는 빛가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후원업체들과 함께 복지 취약계층·결손가정에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빛가람동 LH5단지 주민카페에 위치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동네 공유냉장고는 빛가람동 LH5단지 주민카페에 위치해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 보건소, 담양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담양군 보건소가 지난 2일 화재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 배양과 소방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담양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을 진행했다.

남우주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50여 명과 담양소방서 소방관 등이 참여했으며, 훈련은 보건소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제 대응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원과 민원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대피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유도 훈련과 함께 화재 신고, 초기 진압,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상황별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현장 유도와 진압 활동 지원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도 점검했다. /최종민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늦봄의 멜로디 LIVE' 음악회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완식)은 최근 병원 본관 1층 호반홀에서 '2026 첫 음악회-늦봄의 멜로디 LIVE'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과 환자, 보호자, 내원객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무대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인 밴드 'HYDRATION(하이드레이션)'이 출연해 약 1시간 동안 다양한 대중가요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한 곡들로 구성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은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고, 병원 로비는 잠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는 따뜻한 쉼의 공간으로 변했다. /이문수 기자

영광, 2026년 하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

7월 14일까지 접수…관내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6년 하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6년 하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는 관내 청년들이 군정 업무를 직접 경험하여 행정실무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에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35명으로, 이중 18명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17명은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영광군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선발된 이후 (중도)포기한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기간(26.6.8.~6.17.) 내 군청 별관 1층 영광군 일자리 지원센터(영광읍 물무로2길 61)로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26일에 발표하고 선발된 학생은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4주간 1일 6시간(10:00~17:00) 주5일 근무로 군청 실단과소 및 읍면 사무소 등에서 행정 사무와 현장 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061-350-4612)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률 기자

문턱 없앤 장성군 민원실, 소통 공간으로 변신

자동 유리문·상담실·폰부스 등 민원인 배려 강화

장성군 민원실이 딱딱한 행정 창구의 모습에서 벗어나 소통과 배려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군청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단연 '민원실'이다. 중앙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민원1실, 좌측에 민원2실이 배치되어 있다.

여느 청사들과 다른 것은 민원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점이다. 군은 앞선 2월 청사 재배치 공사를 통해 기존의 민원실을 1실과 2실로 분리·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출입문과 문턱, 시선을 가로막는 벽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동 유리문과 유리벽을 설치했다.

완공 100여 일이 지난 현재 장성군 민원실은 '열린 군정'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군청에서 만난 최모 씨(장성읍)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준다는 믿음을 심어준다"며 "탁 트인 공간이 주는 쾌적함도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원실 분리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민원1실은 민원 접수, 제증명, 여권, 부동산 실거래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2실은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 자동차 등록, 지방세, 지적 관련 민원 등 전문적인 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전담한다. 방문 빈도가 높은 여권 업무와 민원처리 소요 시간이 긴 자동차 관련 창구를 분리해 실내 혼잡과 병목 현상 우려를 해소했다.

장성군 민원실이 열린 군정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장성군 제공

민원인을 향한 배려도 돋보인다. 장성군은 민원실 내부에 예민한 민원 사안을 걱정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개인상담실 2곳을 설치했다. 독립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유광종 기자